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1.12)

[목차]

I. 2011년 베트남 경제	1
II. 최근 베트남 경제여건 악화 요인	4
III. WTO 가입 이후 베트남 경제.....	11
III.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19

작성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차장 (kdkwon@kotra.or.kr)

편집 : 아시아팀 김욱진 사원 (kimwookjin@kotra.or.kr)

감수 : 아시아팀 황의태 팀장 (hwanget@kotra.or.kr)

요 약

□ 2011년 베트남 경제

- 성장률 둔화, 환율 불안과 물가 상승이 지속, 교역은 증가
 - 국제 농산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 한편, 미국, 유럽의 對베트남 투자 감소로 외자유입 둔화

□ 베트남 경제위협 요인

- 물가와 임금 상승이 지속되나 생산성은 제자리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급속 악화
 - 의류를 중심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 감소
-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하여 경제 전반에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경쟁력 저하
 - 공기업 민영화 부진으로 핵심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은 상태
 -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부재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외자 유치 걸림돌

□ 전망

- 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시 베트남 경제 도약 가능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지속적 성장 발판 마련 필요
 - 한국의 노동집약산업과 건설 중심의 對베트남 투자패턴 재고

I

2011년 베트남 경제

□ 교역 확장세 지속과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 2011년 베트남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
 - 1~10월 베트남은 수출 780억 달러, 수입 86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6%, 27.2% 증가
 - 같은 기간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약 8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적자규모 95억 달러 대비 크게 감소
 - 지난해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22억 달러였으나 금년도는 110억 달러 이하로 전망

- 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인 의류는 11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9.4% 증가하였고 신발도 51억 달러로 25.8% 증가
 - 특히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베트남의 원유 수출은 6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3.5% 증가
 - 1차상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으며 해산물 49억 달러, 쌀 32억 달러 그리고 커피 2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0~50% 증가

- 수입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수출 호조를 반영하여 중간재와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했고 특히 연료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기계 및 장비류 수입은 12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정유가 86억 달러, LPG가 6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65%, 55% 증가

□ 물가 및 환율 불안 재연

- 금년 들어 월간 20% 이상의 고물가 기조를 유지해온 베트남은 지난 9월, 18%의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기록하여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10월에는 21.6%를 기록하여 물가불안 양상 재연
 - 베트남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은 식품으로, 31.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 식재료는 35.6% 증가하였고, 식생활 의존도가 높은 외식비용은 25.9% 상승
 - 베트남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은 18.5%를 기록 중인데, 소비 수요가 높은 연말을 감안하면 금년도 물가 상승률은 20% 수준으로 전년도 11.7%를 크게 상회
- 베트남은 금년 초 동(Dong)貨의 환율을 9.3% 평가 절하하여 환율안정을 모색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외환수요 증가로 추가 평가 절하 압박을 받음
 - 10월 중 역외에서 거래되는 베트남 동화는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이 각각 달러당 21,500동, 22,000동, 23,000동임

□ 외국인투자 감소

- 금년 1~10월간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22% 감소
 - 기간 중 신규 등록 프로젝트는 860건, 89억 달러 규모였으며, 증액투자는 264건 24억 달러임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56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절반 수준이며 362건의 신규투자가 들어옴
- 전자제품 생산이 2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건설업은 7억 달러임
- 한편 외자기업들은 432억 달러를 수출해 약 4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대외여건 악화로 베트남 경제 불안감 가중

- 베트남 통상산업부(MoIT)는 2012년도 통상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 베트남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 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베트남 수출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봉제 기업들은 지난 10월 주문량이 전년 대비 15~20% 감소
 - 통상산업부는 주문 감소가 201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베트남 섬유산업은 물론 전체 경기 침체가 우려됨
 - 신발산업도 주문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 생산비용 증가로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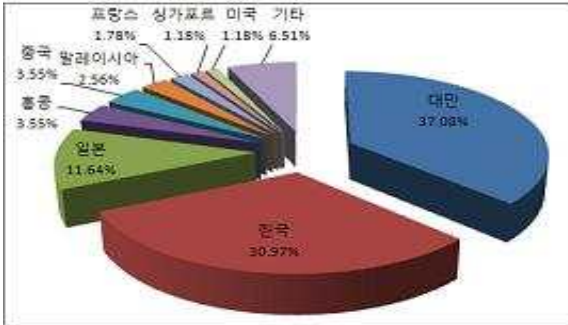
II 최근 베트남 경제여건 악화 요인

□ 임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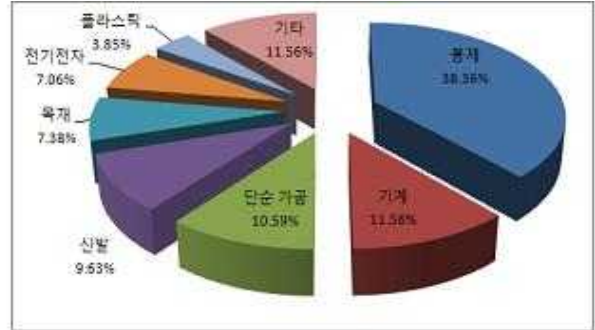
-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진출 시 고려 요소는 안정된 노사관계로 2001년까지 베트남 정부가 파악한 노동자 파업은 100건 미만임
 - 그러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은 2002년 100건을 기록한 이후 급증하여 2006~2009년 평균 554건 발생
 - 금년 1~8월, 파업은 799건 발생해 전년도 424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
- 베트남 노동자 파업 발생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한 비중이 큰 기업에 집중
 -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인 봉제, 섬유 부문 기업의 파업 빈도가 높으며, 전체 파업의 약 38.4%를 차지
 - 기계 산업, 단순 가공 부문 기업의 파업 비중도 각각 10.6%, 11.6%를 차지하며 신발 기업도 10% 수준임
 - 따라서 봉제 및 신발, 단순 조립 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대만 기업의 파업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임
 - 자동차, 전자 부문의 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는 일본 기업도 최근 파업 발생이 증가세에 있으며, 전체 파업 중 약 12%를 차지
 - 부동산 및 서비스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파업 발생 비중은 매우 낮은 편

<그림 1> 산업별, 투자국가별 파업 비중

산업별 파업 발생 비중



투자 국가별 파업 발생 비중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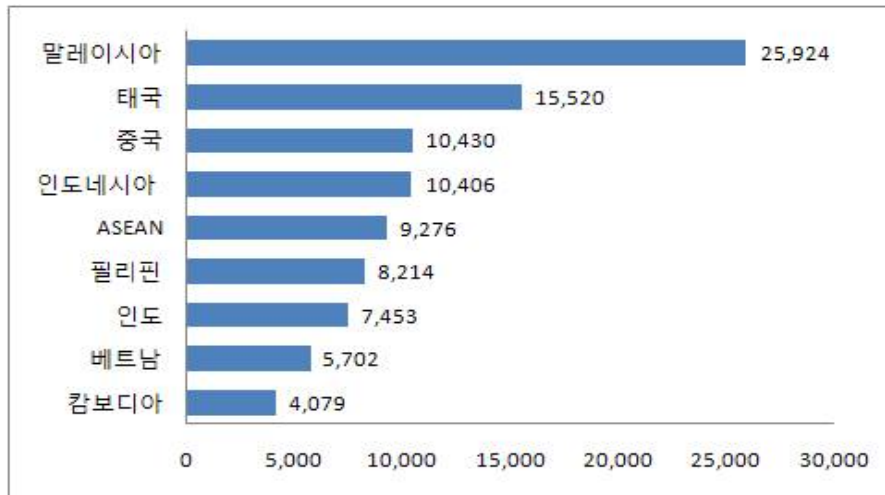
- 베트남 파업 발생 원인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임금 상승률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낮은 임금 상승에 비해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자 근로자들은 파업을 통해 임금 상승을 요구함
 - 또한 對베트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노동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 베트남은 지난 10월부터 최저임금을 27~32% 인상하였으나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
 - 파업 비중이 낮은 일본계 기업을 비롯해 하노이 인근 공단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폭에 불만을 갖고 파업을 지속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기업은 이를 수용함
 - 노동자들의 파업 학습효과로 2012년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되면 생산 차질과 추가 임금 인상이 불가피함

□ 생산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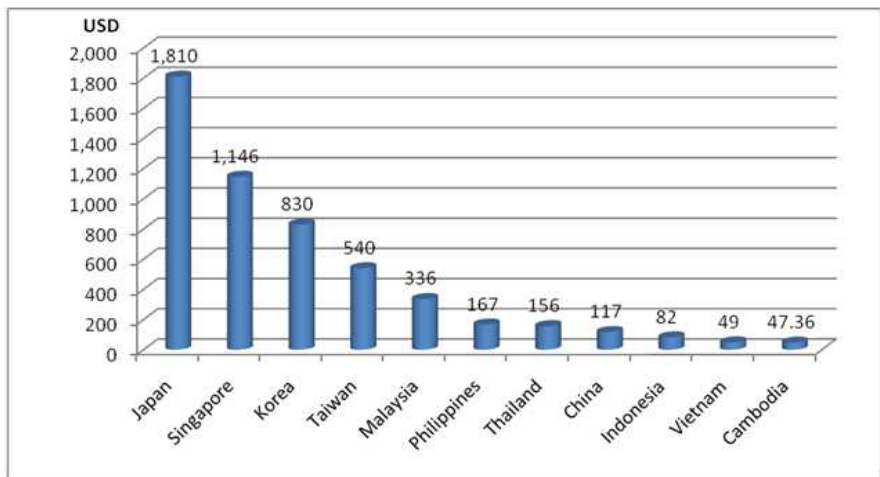
-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기타 동남아국가, 인도,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The Conference Board and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 Total Economy Database*”(2010년 1월)에 의하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ASEAN 평균의 61.4%에 불과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12.4%, 22% 수준
 - 2008년 동남아국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생산 가치는 약 2만 6,000달러였으며, 다음으로 태국이 1만 5,520달러를 기록
 - 인도네시아의 노동생산 가치는 1만 달러를 상회하며, ASEAN의 연간 평균 노동생산 가치는 약 9,276달러(<그림 2> 참조)
 - 그러나 베트남은 5,700달러로,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 인도의 75%에 불과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인상이 진행될 경우 베트남의 경쟁력 저하 예상
 - 2012년 베트남의 노동비용은 약 49달러로 노동력 대국인 중국 117달러, 인도네시아 82달러 대비 낮은 수준이나 금년도 20~30% 인상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아 투입비용은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연간 일인당 노동생산성(2008년 기준, 달러)



자료원 : The Conference Board and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 Eurocham

<그림 3> 일인당 노동비용(2010년 기준,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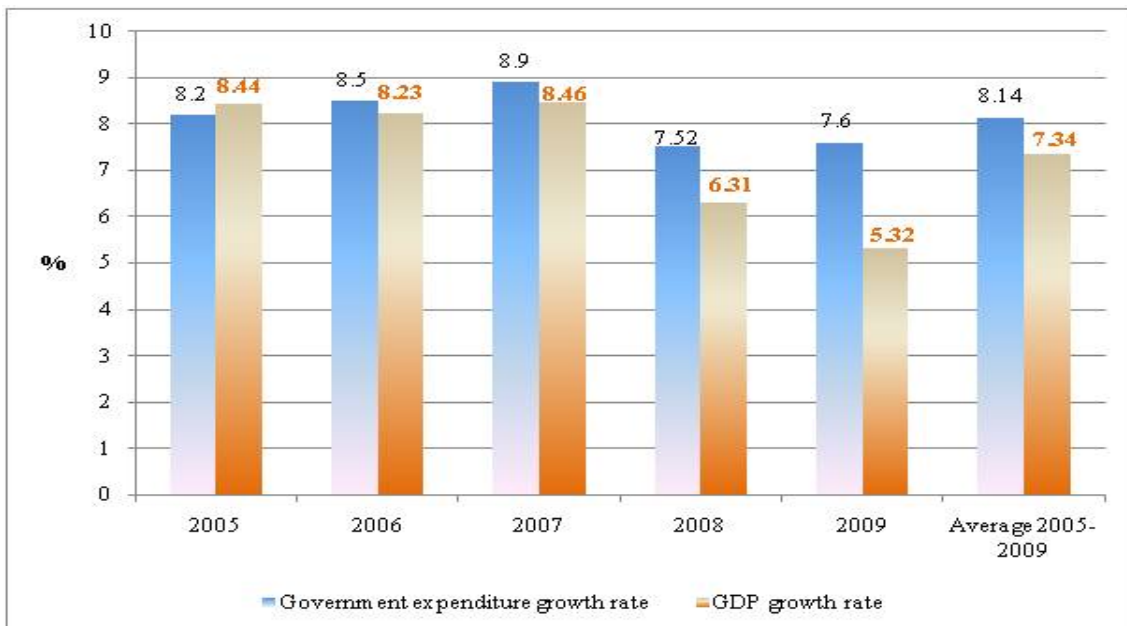


자료원 : The Conference Board and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 Eurocham

□ 공공부문 비효율성

- <그림 4> 최근 베트남의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6년 이후 GDP 증가율보다 재정지출이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최근 수년간 베트남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 수와 무분별한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났기 때문임

<그림 4> 최근 베트남의 GDP 증가율 및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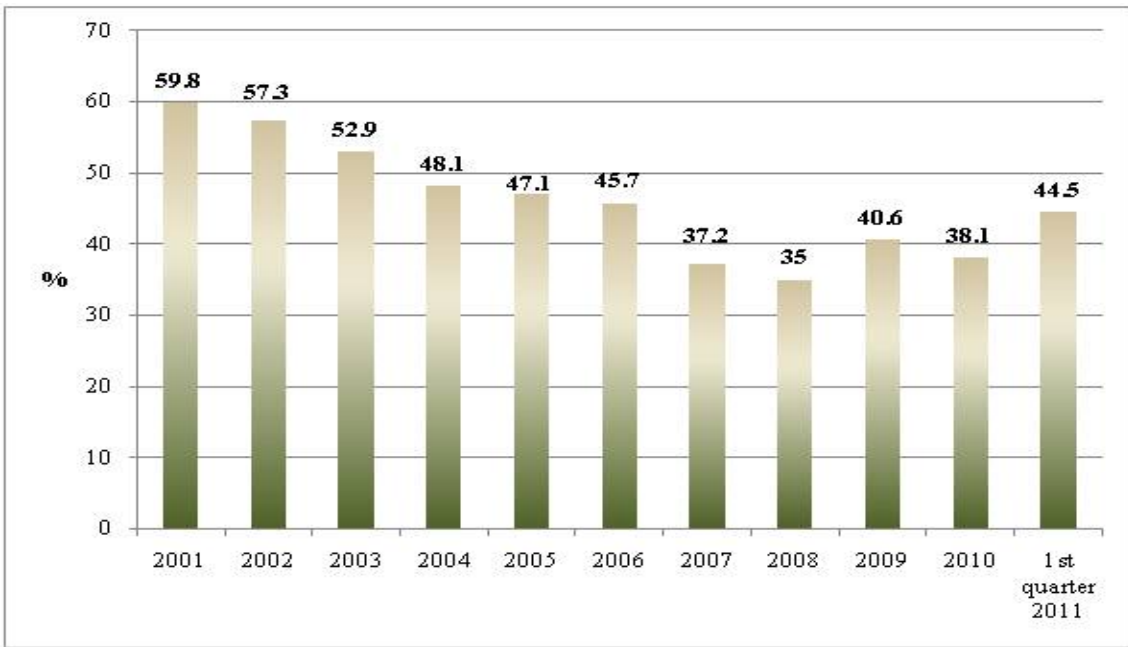
자료원 : Thai bao kinh te Vietnam(Vietnam Economic Time), 2011.5.12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지급 대상자는 2005년 146만 7,400명에서 2009년 149만 1,100명으로 약 2% 증가
 - 정부 외에 당 인력도 2005년 10만 5,200명에서 2009년 11만 5,000명으로 9,700여 명이 증가하여 지난 4년간 공공부문 근로자는 약 6.7% 증가
 - 2009년 이후 베트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급속한 경기하

락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공공투자를 늘렸는데, 2005~09년간 평균 10.5%의 증가율을 기록

-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베트남의 총 투자 가운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졌으나, 2009년 이후 증가하였고 금년 1/4분기에 44.5%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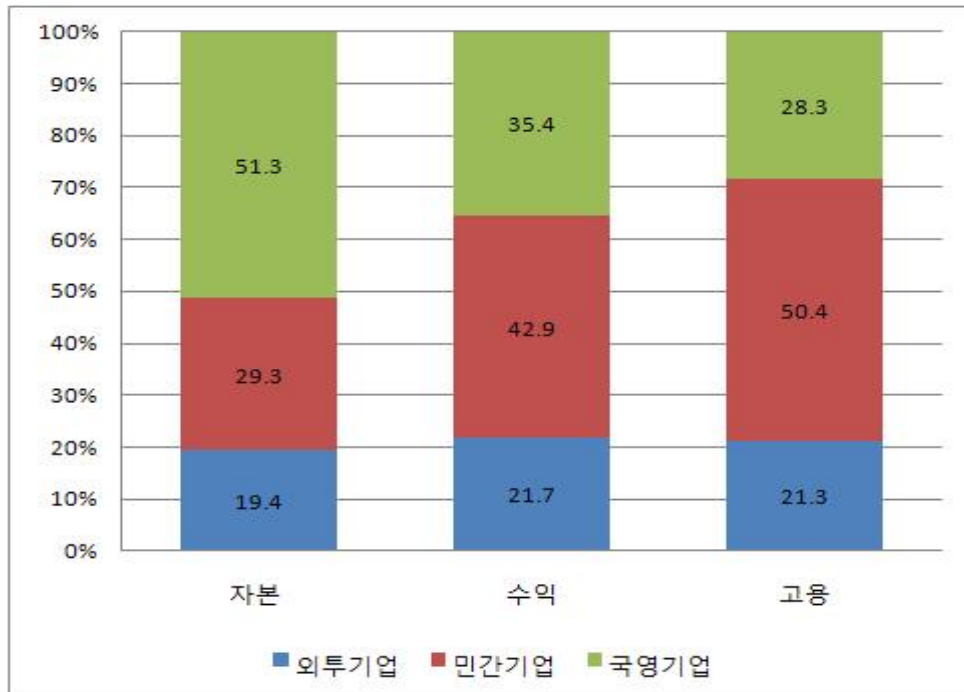
<그림 5> 총 베트남 투자 중 공공투자 비중 추이



자료원 : Thai bao kinh te Vietnam(Vietnam Economic Time), 2011.5.12

-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었으나 최근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실화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베트남 국회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부문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5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고용창출은 각각 35.4%, 28.3% 수준
 - 반면,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약 50.4%로 나타나 베트남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그림 6> 베트남 국영기업의 자본투입, 수익 및 고용창출 기여도



자료원 : 베트남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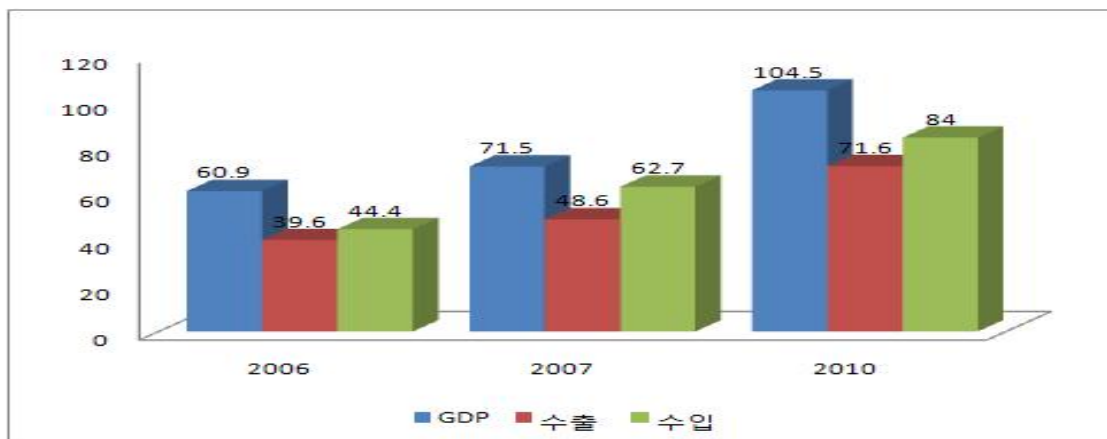
- UNDP(2009)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군의 신규자본투입효과(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에서 민간기업이 국영기업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영기업의 효율성 문제는 당면 해결 과제로 부상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베트남 경제도 침체기를 맞이하였는데, 국영기업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은 당시 베트남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2009년도 베트남의 GDP 증가율은 5.3%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하락하였는데 반해 공공부문은 2.9% 성장
 - 베트남 국영기업은 비효율성 외에 구조적 문제점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민간 부문이 진입하기 어려운 중공업 부문을 독점하여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국영기업이 주도

III WTO 가입 이후 베트남 경제

□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4년 성과

- 베트남의 경제 규모는 WTO 가입 직후 2007년 715억 달러에서 지난해 1,046억 달러로 약 46% 증가하였고, 일인당 GDP는 826달러에서 1,168달러를 기록하여 중소득국 대열에 진입
- 2007년 베트남의 수출은 486억 달러로 가입 직전년도 2006년 대비 21.9%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715억 달러를 기록하여 가입 이후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기록
- 베트남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급증하였는데, 2007년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는 1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증가
- 2009년과 지난해에 각각 122억 달러,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가입 이전 대비 약 3배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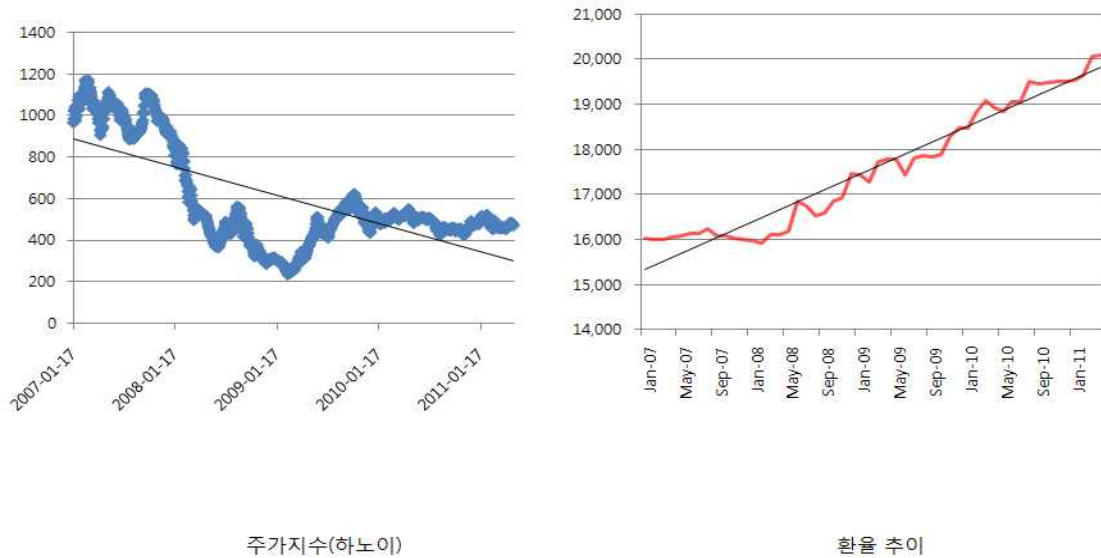
<그림 7> WTO 가입 전후 베트남 경제 및 교역 규모 변화
(단위 : 십억 달러)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금융 지표 변화를 보면 2007년 당시 최고 1,100을 상회하였던 주가는 금년 상반기 현재 470선으로 55% 이상 하락
 - WTO 가입 이후 무역수지 적자 증가로 베트남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화 환율도 4년간 약 25% 하락
 - 2011년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을 추진 중인 베트남 정부는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베트남 주식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
 - 베트남의 물가는 WTO 가입 이후 오름세 확대

<그림 8>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주가 지수 및 환율 추이



자료원 : Bloomberg

-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4년간 가장 큰 수혜 산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특히 유통산업 인프라가 개선되어 국민(소비자)들의 양질의 저렴한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
 - 베트남의 유통산업은 4년간 GDP의 약 14%까지 확대되었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심산업으로 부상

- 2006~08년간 베트남 유통부문의 연간 성장률은 약 25%를 기록하여 성장주도 산업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2009~10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통서비스는 각각 18.6%, 24.5%의 성장세를 지속하며 베트남 최대의 투자 대상 산업으로 부상

○ 교역

-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 후로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실적을 보면 1차상품과 제조업(섬유·의류, 전자제품 및 부품)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같은 수출 품목 고도화는 미미함
- 베트남의 주력 투자유치 산업이자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는 미국 시장 개방으로 WTO 가입 이후 약 44%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6% 수준을 유지
- 기술산업인 전자제품 및 부품은 WTO 가입 이후 약 65%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를 유지

<표 1> 베트남의 주요 수출 상품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1차상품					
쌀	1,276	1,409	2,902	2,662	3,212
커피	1,217	1,912	2,022	1,710	1,763
채소과일	259	351	396	431	451
고무	1,286	1,393	1,597	1,199	2,376
후추	190	271	313	356	425
캐슈	504	654	920	849	1,136
차	110	131	147	178	197
해산물	3,358	3,763	4,562	4,207	4,953
광물					
원유	8,265	8,488	10,450	6,210	4,944
석탄	915	1,000	1,444	1,326	1,549

제조업					
섬유의류	5,834 (15%)	7,750 (16%)	9,180 (15%)	9,004 (16%)	11,172 (16%)
기계류	NA	NA	NA	2,028	3,047
전자제품 및 부품	1,708 (4%)	2,154 (5%)	2,703 (4%)	2,774 (5%)	3,558 (5%)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對베트남 투자

- WTO 가입 직후 2007년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213억 달러 (신고기준)를 기록하여 전년 10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약 640억 달러를 기록
- 2009년과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對베트남 투자가 감소하여, 각각 215억 달러와 186억 달러를 기록
- WTO 가입 이전, 베트남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외자유치의 매력으로 작용하여 전체 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가입 직후인 2007년에 10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008년에도 289억 달러로 45%를 차지
- 그러나 2009년 이후 對베트남 투자 패턴은 부가가치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보다 부동산 개발 및 자원 개발에 집중

<표 2> WTO 가입 이후 4년간 對베트남 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액	비율	투자금액	비율
제조업	10,882.5	50.9	28,902.4	45.1	2,969.2	13.82	5,081.2	27.3
부동산	6,114.8	28.6	23,702.8	37.0	7,608.5	35.42	6,842.7	36.8
호텔, 요식업	1,968.1	9.2	1,350.2	2.1	8,794.2	40.94	308.8	1.7
건설업	993.3	4.6	492.1	0.7	487.4	2.27	1,734.6	9.3
정보통신	-	-	-	-	93.1	0.43	591	0.3
레저 문화 스포츠	410.3	1.9	5.8	0.01	291.8	1.36	36.2	0.2
광산업	262.3	1.2	6,840.8	10.6	397.0	1.85	2.1	0.0
농,수산, 임업	58.3	0.2	223.5	0.3	84.9	0.40	18.6	0.1
물류, 운송	356.5	1.6	1,882.1	2.9	184.5	0.86	879.1	4.7
석유, 가스산업	-	-	-	-	156.9	0.73	2952.6	15.9
금융, 보험업	32.3	0.15	62.6	0.09	0.0	0.00	65.5	0.4
도,소매업	129.9	0.60	54.8	0.08	238.2	1.11	398	2.1
보건사회	112.5	0.52	402.9	0.62	8.2	0.04	2.6	0.00
기타 서비스	-	-	-	-	22.7	0.11	3.9	0.1
과학 기술	-	-	-	-	99.8	0.46	0.9	0.4
교육, 훈련	11.6	0.05	86.7	0.13	28.8	0.13	6.9	0.6
행정 및 지원서비스	5.5	0.02	0.6	0.001	7.9	0.04	2.5	0.00
용수공급, 수처리	9.6	0.04	3.7	0.005	8.4	0.04	9.1	0.00
합계	21,347.8	100	64,011.0	100	21,482.1	100	18,595.5	100

주 : 신고기준

자료원 : 베트남 투자기획부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4년

○ 교역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무역을 팽창시킨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수출 상품의 구조를 변화시킴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소비재에서 자본재와 부품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는데, 그 증거로 중국의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3.8%에서 2006년에는 27.7%로 감소
- 수입도 1차상품과 부품의 비중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반제품의 비중이 39.6%에서 27.8%로 낮아진 반면, 부품과 부분품은 24.2%에서 30.5%로 상승해 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졌음을 시사
- 중국의 제조업 수출입은 하위 기술산업 제품에서 고위 기술산업 제품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수출 품목이 고도화

<표 3>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기술단계별 제품의 교역 추이 및 비중
(단위 : %)

구분	기술단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고급	27.4	30.5	34.3	36.4	37.3
	중고급	18.2	17.9	17.8	17.9	18.2
	중저급	17.4	16.5	16.0	17.2	17.3
	저급	37.0	35.1	31.9	28.5	27.3
수입	고급	35.9	38.1	40.5	42.2	45.3
	중고급	27.2	28.1	27.8	27.6	25.5
	중저급	24.9	23.0	22.5	21.7	21.6
	저급	11.9	10.8	9.2	8.4	7.7

자료원 : 중국 해관 통계

○ 對중국 투자

- WTO 가입 이후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도 급증하였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는 전기, 기계,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
- 중국의 WTO 가입 직후 4년간 제조업 부문의 투자를 보면, 전기통신설비가 전체 유입의 약 17.6%를 차지하였으며 방직업이 12.9%, 화학 6.6%, 자동차가 6.3%를 차지
- 주목되는 점은 방직부문에 대한 투자가 WTO 가입 후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對중국 투자의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음과 동시에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기지로서 중국이 건재
- 외국인투자는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투자, 고용, 기술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중국의 산업생산 기반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수출구조의 상품 고부가가치화로 성공적 이행

<표 4>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2002	2003	2004	2005
업 종				
제조업	36,800	36,936	43,020	42,453
식품가공	1,331	1,355	1,946	1,493
방직업	4,924	5,332	5,315	4,923
철 강	453	708	138	787
비철금속	105	86	100	707
일반기계	1,025	1,561	2,171	2,032
특수기계	1,662	1,225	1,897	1,941
자동차	1,230	2,003	3,353	3,405
전자통신설비	8,136	6,347	7,059	6,555

자료원 : 중국 외국인투자 보고 2006

□ 중국과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4년 비교

- 베트남은 WTO 가입으로 국제경제 제도권에 편입하여 대외 신인도 상승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개방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통화 약세 그리고 최근의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도 작용
 -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WTO 가입 이후 교역이 급증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가 미흡한 점은 중국과 대조
 - 베트남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 부진은 숙련 노동력 부족, 낮은 생산성, 열악한 인프라 등이 원인
 - 그러나 국영기업 개혁,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 개혁 내실화는 미진한 부분
 - WTO 가입 이후 4년간 외자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을 보면,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조업 비중 감소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 요소

IV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 위기의 베트남 경제

- 베트남은 20년간 개방과 외자유치에 힘입어 산업이 발전하고 고용이 증가하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 이뤄냄
 - 2007년 교역 1,000억 달러, 2008년 소득 1,000달러 그리고 2010년 경제 규모 1,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중소득국 대열 합류
 -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 120억 달러, 두 자릿수 물가, 환율 20,000 동의 부작용도 수반

- 이는 1990년대 베트남의 개방 이후 경제정책이 성장에만 치중하여 경제의 체질 강화에는 소홀히 하였기 때문
 - 이는 베트남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부재, 전문 인력 육성 미흡,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투자에 한계로 작용하여 산업구조에서 노동집약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 또한 베트남의 민간기업은 자본이 부족하며 기술력이 낮고,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는 상태
 - 베트남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 건설, 부동산 개발에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경제전반에 거품 형성으로 금융시장 불안 가중

- 풍부한 노동력과 산업발전 잠재성 그리고 소비시장으로써 베트남의 가능성을 평가하던 외부의 시각도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

- 2009년 베트남 조선 공기업(Vinashin)의 부실 이후에도 개혁과 민영화 부진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 베트남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도 대외 신인도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베트남의 경제 불균형 상태가 매우 높아 신용리스크가 매우 높음을 의미
- * 11월 베트남 신용부도스왑(CDS) 금리는 425bp로 재정위기 위험국인 스페인 수준

Vietnam Investment Review Access via

Home Business Tech Features InvestLink Sports World news Spe

ASS

November 14, 2011

Coverage

S&P downgrade rocks local banking industry

Trang Hanh | vir.com.vn | Nov 14, 2011 05:37 am A+ A- Share

Standard & Poor's downgrade of Vietnam's banking industry last week has received sideways glances from leading economists in the country.



Local banks are being knee-capped by fierce competition and crippling non-performing loans

Financial institution analysts contacted by VIR said Standard & Poor's was correct in pinpointing troublesome issues like a saturated banking market and market distortions caused by frequent use of administrative tools.

The headline-grabbing announcement could spark the State Bank into action to accelerate its banking system restructuring plans. However, they argued the rating agency failed to paint an

- 지난 11월 10일 신용평가기관 S&P社는 베트남의 은행산업 국가리스크 등급(BICRA)을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산업등급은 8등급 유지
- BICRA는 낮은 리스크 등급인 1등급과 최저 등급인 10등급으로 평가 되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3등급 유지

○ 2012년 실물 경제 위기

- 베트남은 교역이 GDP의 15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외경제여건 악화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직결
- 미국과 EU는 베트남의 주요 상품 수출시장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는 베트남 총 수출 감소를 의미
- 특히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 현실화되면 베트남은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경기 침체를 동반하게 되는데, 최근의 고물가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2012년 미국과 EU의 경기 침체로 베트남 최대 수출품인 의류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섬유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력 감축을 모색하여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는 자국 내 소비시장 침체 요인으로 작용
- 베트남의 대출 억제로 시중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되어 실물 경제도 더욱 위축될 전망
- 또한 세계 경제 불안에 따라 베트남인들의 안정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금과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이므로 베트남 동화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부상하는 미얀마

- 11월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2014년 의장국으로 미얀마를 승인하여 미얀마의 국제사회 편입이 가시화
- 미국은 12월에 클린턴 국무장관을 50년 만에 미얀마에 파견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화노력이 지속될 경우 제재조치 완화 의향이 있음을 밝혀, 미얀마의 경제적 잠재성에 주목

- 미얀마는 산업 인프라가 전무하나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여 노동집약산업의 투자 증가가 예상
- 최근 노동집약산업에서 임금 상승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된 베트남의 투자기업들이 미얀마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한국의 대응 방안

- 노동집약산업의 투자환경 악화로 산업 인프라, 플랜트 건설 등 진출패턴 변화
 - 베트남은 여전히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이나 최근과 같이 임금 상승과 금융 불안 등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에 투자 매력도 현저히 감소
 - 산업 인프라, 플랜트는 공기업 발주, 원조 등 안정적인 재원으로 손실 위험이 적고, 파생 프로젝트와 부품 수요로 한국에 높은 수출연계 효과
- 에너지 협력 및 진출 강화
 - 베트남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국으로 발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발전에 필수적 요소임
 - 11월초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원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원전 수출 기대감 상승
 - 그러나 원전은 투입비용이 크고 장기간 추진되므로, 친환경 에너지 지원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강화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 일본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는 샌드위치 현상에 직면
- 이는 3국의 對베트남 진출 방식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하는데, 일본은 베트남에 자동차, 기계, 부품 소재 및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하였고, 중국은 베트남에 투자보다는 상품 수출비중이 높고 특히 섬유와 단순 공작기기의 對베트남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경공업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선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확대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급 기기 수출의 경우 인프라, 플랜트 및 부품 소재 부문에 강점이 있는 일본과의 경합이 불가피하므로 기술력 높은 제품 위주의 수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끝>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실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50대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2011.5
11-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	2011.5
11-023	MENA 민주화 사태 150일, 시장 변화와 전망	2011.6
11-024	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정부) 진출 전략	2011.6
11-025	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6
11-026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	2011.6

11-027	아프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및 유망분야	2011.6
11-028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2011.6
11-029	美 기업 클라우드소싱 확산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1.7
11-030	남수단 독립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 및 진출방안	2011.7
11-031	요르단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7
11-032	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大 수출유망상품	2011.8
11-033	태국 정부조달시장 분야별 진출방안	2011.9
11-034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대한수입 확대 계획	2011.10
11-035	해외 실버상품 마케팅 성공사례	2011.10
11-036	중동의 탈석유화 전략 및 중소기업 육성 현황	2011.11
11-037	요르단으로 출장가기	2011.11
11-038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부흥계획	2011.12
11-039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 활용방안	2011.12
11-040	2012년 소비시장에서 주목해야할 7대 트렌드	2011.12
11-041	글로벌 공정사회 실천사례 조사	2011.12
11-042	日, 지진 이후 절전시장의 부상	2011.12
11-043	일본기업 제3국 시장 진출 현황	2011.12
11-044	대형유통망을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	2011.12

□ GIR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11-006	남유럽 재정위기 1년, 현재 유럽은?	2011.5
11-007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2011.5
11-008	소버린스코 이후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여건 분석	2011.9
11-009	국가브랜드와 한류 현황 파악 조사	2011.10
11-010	무역 1조 달러 가입국가의 중소기업 현황 비교	2011.12

11-011	주요 교역대상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조사(미국, 중국, 인도)	2011.12
11-012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2년 전망	2011.1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
11-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전망	2011.6
11-013	2011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6
11-014	한-EU FTA 발효 한 달,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	2011.7
11-0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2011.8
11-016	재정위기 여파 속, 미국 경제현황 점검	2011.8
11-017	미얀마 현지화 강세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8
11-018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시장 전망	2011.9
11-019	2011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9
11-020	2011년 4/4분기 수출시장동향 점검	2011.9
11-021	일본 엔고와 대일 교역환경 변화	2011.9
11-022	방글라데시 노무여건 변화와 대응	2011.10
11-023	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 피해 현황	2011.11
11-024	태국 홍수사태 발생과 영향	2011.11
11-025	동남아 비즈니스한류 영향과 활용전략	2011.12

11-026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 수출전망	2011.12
11-027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개혁조치(SRI)와 시사점	2011.12
11-028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2011.12
11-029	한·EU FTA 발효 6개월 바이어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동향 및 수출확대 사례 조사	2011.12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11-004	中國 소비, Code로 잡는다	2011.5
11-005	中,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	2011.5
11-006	ECFA 체결 1주년 점검, 중-대만기업 설문조사	2011.6
11-007	中 숨겨진 마켓, 신흥 거점도시가 뜬다	2011.7
11-008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 (ECFA 체결 1주년 점검)	2011.7
11-009	中 노무관리 비상! 이것이 해법이다!!	2011.8
11-010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	2011.10
11-011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2011.11
11-012	뺏 올린 中 권역개발, 내수시장 진출 열쇠	2011.11
11-013	중국 식탁, 한류로 채워라	2011.12
11-014	차이나 마켓 31(31개 성시 데이터북) -동남부편	2011.12
11-015	차이나 마켓 31(31개 성시 데이터북) -동북·중부편	2011.12
11-016	차이나 마켓 31(31개 성시 데이터북) -서부편	2011.12
11-017	12.5규획으로 본 중국지방정부 신흥전략산업	2011.12
11-018	퀵슈머 차이나	2011.12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 『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 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6

□ FDI 현안리포트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번역 요약본	2011.7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통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증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리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1	'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1.5

11-022	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経営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7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	2011.7
11-029	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	2011.7
11-030	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	2011.7
11-031	신규 외투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2011.7
11-032	Labor Law Guide for Star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2011.7
11-033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7
11-034	20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1.7
11-035	Foreing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	2011.7
11-036	그린리포트(Vol 12. 2011 Summer)	2011.8
11-037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8
11-038	일본 자동차 부품 MAP	2011.8
11-039	2010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1.9
11-040	Green Hub Korea 2011 결과보고서	2011.9
11-04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10
11-042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10
11-043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10
11-044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스마트 디바이스	2011.10
11-045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로봇	2011.10
11-046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디지털방송	2011.10
11-047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시스템반도체	2011.10
11-048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3D	2011.10
11-049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Telematics	2011.10
11-050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RFID	2011.10
11-051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Security	2011.10
11-052	2012 해외진출종합가이드	2011.10

11-053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10
11-054	2011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1.11
11-055	국제개발은행 시장진출 안내	2011.11
11-056	그린리포트(Vol 13. 2011 Autumn)	2011.11
11-057	인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11
11-058	아프리카의 슈퍼스타 국가를 주목하라	2011.11
11-059	CIS 미래 (태양전지, 의료기기, 지능형 교통체계) 시장을 잡아라	2011.11
11-060	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	2011.12
11-061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의료 (미국, 중국)	2011.12
11-062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의료 (UAE, 러시아, 카자흐스탄)	2011.12
11-063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콘텐츠 (일본, 중국, 독일)	2011.12
11-064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콘텐츠 (미국, 태국)	2011.12
11-065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이러닝 (미국, 중국)	2011.12
11-066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엔지니어링 (중국, 베트남)	2011.12
11-067	주요 8개국 해외투자상담사례집	2011.12
11-068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2011.12
11-069	그린 리포트 2011 Winter	2011.12
11-070	일본 소비재 유통 MAP	2011.12
11-071	필리핀 투자실무가이드(개정판)	2011.12
11-072	2011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1.12
11-073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0대 기업의 투자동향분석	2011.12
11-074	Guide to Living in Korea 2012 (영문)	2011.12
11-075	Guide to Living in Korea 2012 (일문)	2011.12
11-076	2011 주요국 정부조달 현황	2011.12
11-077	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벤치마킹	2011.12
11-078	주요국 입지지원제도 비교	2011.12
11-079	SRI 동향조사	2011.12
11-080	해외투자진출전략 로드맵	2011.12
11-081	FDI Site Support & Permit System (국문)	2011.12
11-082	FDI Site Support & Permit System (영문)	2011.12
11-083	KOTRA의 창을 통해 미리보는 2012년 세계경제	2011.12

11-084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세계편(중국제외)	2011.12
11-085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중국편	2011.12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11-016	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	2011.5
11-017	중국 신홍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5
11-018	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1.6
11-019	한-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1.6
11-020	Alstom Grid사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2011.7
11-021	주요 신홍시장 기술협력 유망산업 설명회	2011.6
11-022	중국 미개척시장(우루무치, 난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3	중남미 의약품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4	2011 인도 권역별 진출전략 설명회	2011.8
11-025	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 German Delegation - (한독기술협력사절단 설명회)	2011.8
11-026	FTA Business Week 2011 시장진출 설명회	2011.9

11-027	FTA Business Week 2011 유통망/자동차 부품 설명회	2011.9
11-028	UN조달 종합 설명회	2011.9
11-029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화' 관련 긴급 세미나	2011.10
11-030	9th Global Alliance Project : BASF-GAPS Launching Conference	2011.10
11-031	중국 프로젝트 시장진출 설명회	2011.10
11-032	인도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1.10
11-033	중국시장을 여는 필수열쇠, 인증제도 설명회	2011.10
11-034	제 8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	2011.10
11-035	GAPS-PLUS Launching Conference	2011.11
11-036	2012 신흥시장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	2011.11
11-037	Building Strategic Relationship with Korea - 2011 Joint Local Government Investment Conference -	2011.11
11-038	10th Global Alliance Project, Gamesa GAPS	2011.11
11-039	Global Healthcare Korea 2011 - 병원 수출 설명회	2011.11
11-040	2011 해외 글로벌인재 유치전략 세미나	2011.11
11-041	Korea Investment Forum 2011	2011.11
11-042	아세안 시장진출 설명회	2011.11
11-043	한-중동 벤처 협력 포럼	2011.11
11-044	리비아 재건 · 복구 진출 설명회	2011.11
11-045	제2회 아프리카 무역투자 포럼	2011.11
11-046	에티오피아 투자 세미나	2011.11
11-047	P&G - GAPS Launching Conference	2011.11
11-048	러시아 신수종 산업진출 설명회	2011.12
11-049	『2012, 중국시장을 뚫는 기업전략 설명회』 자료집	2011.12
11-051	일본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설명회	2011.12
11-052	해외투자 유공자 시상식 및 성공실패사례 공모전 발표회	2011.12

□ 유망국가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인도네시아의 주요산업	2011.12
11-002	베트남의 주요산업	2011.12

11-003	이집트의 주요산업	2011.12
11-004	콜롬비아의 주요산업	2011.12
11-005	불가리아의 주요산업	2011.12
11-006	에티오피아의 주요산업	2011.12

Kotra Exective Brief 11-028

베트남 경제 : 위기인가 기회인가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박진형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